

국가 1류 로혁명근거지

왕청은 지금 룡수청산의 새 그림 그린다

왕청현은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전력으로 구축해왔다.

국가 1류 로혁명근거지인 왕청현은 동만항일투쟁의 중요한 전쟁터로서 동장영, 위증민 등 항일장령들이 이곳에서 전투했으며 전 현의 9개 향진에 항일전쟁유적지가 근 300곳이나 있다.

왕청현은 홍색자원을 잘 보호·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홍색문화 전승·문화관광 융합발전·흥변부민 실천·향촌진흥시범·민족단결진보가 일체화된 교양 정품 로선을 적극 구축하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대중교양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전개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데 생동한 함의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동고동락하고 영육과 생사와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여러 민족 대중들을 인도하여 위대한 조국·중화민족·중화문화·중국공산당·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고도의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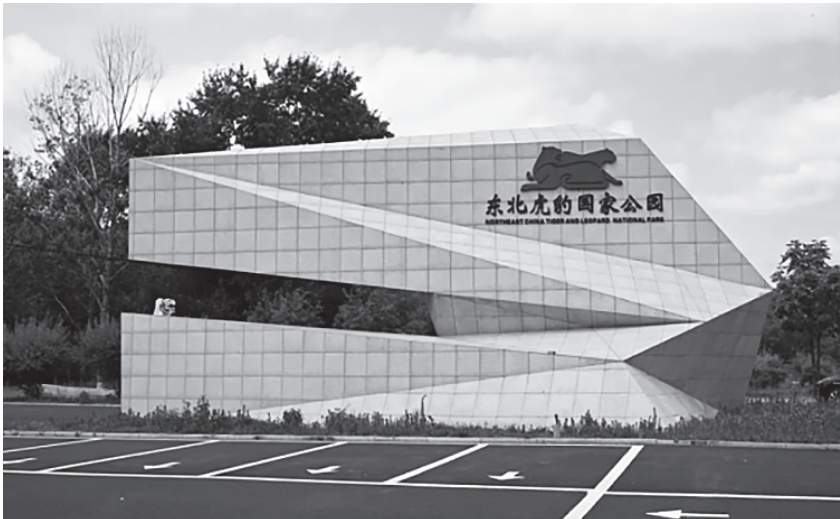
룩색은 아름다운 생활의 기반이자 인민대중의 기대이다. 왕청현은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시종 생태문명 건설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본 대계로 삼고 '룩색발전'을 끊임없이 두텁게 했다.

무더운 여름날, 장백산 동쪽 기슭의 왕청현 망망한 립해 사이에서 우람진 동북범이 동북범표범국가공원 '천지공' 일체화 감측시스템 렌즈 앞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동북 범과 표범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왕청현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잘하는 동시에 생태우호형 입구 사회구역 건설을 서둘러 공원 변두리지역의 관광업태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브랜드 우세를 끊임없이 방출했다.



▲ 국가 1류 로혁명근거지인 왕청현은 동만항일투쟁의 중요한 전쟁터였다.



▲ 동북 범과 표범의 중요한 서식지인, 왕청현에 있는 동북범표범국가공원.

동북범표범국가공원 마반산입구사회구역의 밀렵경시교양중심과 감측선전교양중심에서는 살아있는 듯 생동한 동북범, 동북표범, 고라니 등 모조 동물표본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대자연의 신기함과 생물의 다양성에 더욱 직관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5D 스튜디오, 생태표본 전시를 통해 관광객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중요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했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 관계자는 "왕청현은 이런 식물, 모형, 전시판, 동영상 등을 빌어 공익행, 수확력행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동북범표범국가공원 건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

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리념을 수립하도록 전사회를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실제 행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청현은 삼림피복률이 89%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기온이 22℃로서 현재 자원 우세를 발전 승세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청현은 길림성 15개 인삼 주요 생산기지현의 하나로서 문자 기제에 따르면 인삼 채집 력사가 1,700여년에 달하고 인공재배 력사가 200여년에 달한다. 왕청현은 인삼산업의 고

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두 + 합작사 + 기지 + 삼농'의 친환경 산업사슬을 적극 구축하여 왕청 인삼의 재배 규모와 효익을 끊임없이 제고했다.

길림성중화삼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는 인삼재배기지 120헥타르, 연합기지 1,800헥타르, 립삼삼기지 200헥타르가 있다. 길림만의당약업유한회사는 장백산 도지약재를 200여종의 건강제품으로 전환시켜 2024년 판매수입 1,100만원을 실현했다. 인삼산업은 왕청의 룡수청산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군중들의 치부경로도 넓혀주었다.

"이곳에는 앞에 병원이 있고 뒤에 양로원이 있어 의료양로의 빈틈없는 연결로 더욱 많은 로인들이 만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왕청현성 남산 기슭에 왕청현신형 양로봉사센터 주체청사가 일떠선 가운데 로동자들이 한창 긴박하게 실내장식을 하고 있다. 왕청현은 의약간강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양로 + 관광주거' 양로봉사의 새로운 업태를 적극 모색하여 양로봉사의 전문화와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올해초, 왕청현은 국가에서 건설하고 민간에서 경영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왕청현신형양로봉사센터를 건설했다. 왕청현민정국 국장 정목홍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이 센터는 이미 국내 여러 유명 관광주거·양로 기업과 연결되었는데 여러 성과의 협력을 통해 계절성 양로봉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 차별화에 대한 로인들의 관광주거·양로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10년의 런마는 강산이 증명한다. 홍색강당에서 범과 표범이 함께 노니는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기까지, 립삼산전에서 지혜양로원에 이르기까지, 왕청현은 고품질 발전을 새시대의 확고한 도리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의 왕청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힘써 엮어나가고 있다.

/글 유경봉기자

/사진 연변주당위 선전부



룡군대학 학생, 장춘 남호에 빠진 관광객 구조



▲ 채녀사 모녀가 리영에게 감사기를 전하고 있다.

7월, 사천 성도의 채녀사는 딸과 함께 감사기를 손에 들고 룡군병중대학교 사관학교를 찾았다. 채녀사는 사관학교 대학생 리영(李赢)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동안 가슴속에 간직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나서 리영이 대신 지불한 진료비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바로 이틀전 이 젊은 군인은 장춘 남호공원에서 호수에 빠진 그녀를 구했던 것이다.

5월 14시 20분경, 룡군병중대학교 사관학교 모 대의 대학생 리영은 은행가드 업무를 마치고 나서 남호공원을 찾아 호수가의 벤치에 앉아 휴식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요!"라는 가슴을 허비는 다급한 웨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채녀사가 대학입시를 마친 딸과 함께 남호가의 바위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가 돌 우에 있던 이끼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호수에 빠졌던 것이다. 웨침소리를 들은 리영은 옷을 벗을 새도 없이 화살같이 호수물에 뛰어 들었다.

호수물이 깊은 데다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채녀사는 물에서 허우적거리지도 못하여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 리영은 헤엄쳐서 채녀사에게 다가간 후 한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헤엄을 쳐서 힘겹게 채녀사를 수면 위로 밀어올리고 간신히 물으로 끌어내왔다. 채녀사가 혼미상태에 빠진 것을 본 리영은 즉시 땅바닥에 주크리고 앉아 평소 부대에서 반복적으로 련마한 구급 기능을 활용해 채녀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120 구급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리영은 채녀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채녀사의 핸드폰이 분실된 데다가 겁먹은 딸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을 본 리영은 구급차를 따라 길림대학제 2병원까지 동행했다. 그는 채녀사를 대신해 진료 접수를 하고 검사에 동행하고 약을 받아주었다. 진료비 2,523.76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리영은 서슴지 않고 대신 지불했다. 채녀사가 의식을 회복하고 생명위험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서야 리영은 비로소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올해 22세인 산동 장구(章丘) 청년 리영은 2023년에 입대하여 지난 2월에 사관대학에 입학했으며 현재 정식당원이다.

"리영은 사람을 구할 당시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했고 진료비를 대신 지불할 때는 보답을 바라지 않았답니다. 사후에도 일인반구 없었습니다." 사관대학 책임자가 정황을 확인하고 나서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채녀사가 진료 접수 정보를 학교에 보내서야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리영의 미담이 주변에 알려졌다.

"나는 장애가 있는 데다가 년로한 부모님과 자식도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리영이 저를 구해주고 병원에까지 데려다준 것도 모자라 진료비까지 대신 지불해주었습니다! 리영은 나의 은인이자 저희 온 가족의 은인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날의 일을 돌이키며 채녀사는 몇번이나 눈물을 찍었다.

현재 학교 당위에서는 '리영동지를 따라배우기' 활동을 전개하여 그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전제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길림일보



▲ 리영이 혼미상태에 빠진 채녀사를 구조하는 장면

통상구이자 풍경구, 길림 최초의 '100년 통상구' 바로 도문에!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을 유람선이 국기를 휘날리면서 누비고 있고 강 옆에 상가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한가롭게 바비큐를 먹고 있다... 도문통상구 부근의 떠들썩한 풍경이다.

도문통상구는 길림성에서 제일 처음으로 설립한, 력사가 가장 오랜 '100년 통상구'로서 철도통상구와 도로통상구로 나뉜다. 철도통상구는 철도를 통해 조선의 라진항과 청진항까지 직통하고 조선의 두만강을 거쳐 로씨야 극동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바 길림성에서 로씨야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도문통상구풍경구는 2013년 국가급 3A 관광지로서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두만강, 두만강광장,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람관, 도문통상구 등 관광지가 있다.

통상구이자 풍경지이다.

도문통상구 바로 곁에 있는 두만강광장은 중조 경계 하천인 두만강변에 위치해있으며 조선 남양 로동자구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건설된 이 광장은 면적이 7만 1,000평방미터로 주요입구광장, 중심집회광장, 강둑전망광장, 헬스레저광장, 아동오락구, 레저복지 등 6개 기능구역으로 나뉜다.

2024년, 도문시는 두만강광장에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공원을 만들었다. 현재 이곳은 이미 여러 민족 대중의 교제,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



▲ 도문시 두만강광장 일각

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종합교양실천기지로 되었다.

두만강광장은 주제공원광장, 대중오락레저구,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람관, 청소년활동센터 등 '1장 1구 1관 1센터' 4개 부분을 설치하여 중화문화 원소와 민족단결 리념을 광장의 전체 건설에 효과적으로 융합시켰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람관이다. 건물의 부지면적은 5,00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6,800평방미터이다. 전시관, 보관, 두만강극장 등 세부으로 이루어졌는데 도합 119개의 각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전시하면서 의식주 제반 분야에서 조선족의 풍속과 력사를 보여준다.

전람장, 광장, 통상구, 이런 구성은 도문통상구풍경구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었다. 어둠의 장막이 내리드리우자 두만강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한다. 통상구풍경구는 찬연한 불빛으로 온통 생기발랄한 풍경이다.

/로동자일보



연길시 사회구조 기준 전면 상향조정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 100원 인상

7월 23일,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경제 발전의 변화에 부응하고 곤난군체의 기본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며 사회의 공평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길시 사회구조 기준이 전면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660원/월/인에서 760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변함이 없다. 도시 극빈자의 기본생활 기준은 845원/월/인에서 1,056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촌 극빈자의 기본생활 기준은 540원/월/인에서 704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도시와 농촌 극빈자의 돌봄간호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생활을 스스

로 할 수 있는 자는 176원/월/인에서 192원/월/인으로, 생활자활능력을 일부 상실한 자는 352원/월/인에서 384원/월/인으로, 생활자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528원/월/인에서 576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연길시민정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구조 기준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 곤난군중 최저보장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구조사업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준이 뒤떨어짐으로 인한 구조 불공평을 피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구조 기준의 제고는 곤난군중들의 실제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가정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유경봉기자